

보도 일시	배포 즉시	배포 일시	2022. 5. 23.(월)
담당 부서	감사관 감사담당관	책임자	과 장 권구형 (044-202-7792)
		담당자	사무관 이대형 (044-202-7802)

## 이번 임의취업 여부 조사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무관한 정기적인 조사임

### 1. 주요 기사 내용

- 5.23.(월) 세계일보(온라인), 「‘임의취업’ 의혹에... 공직자윤리위 심판대서는 고용부 장관」 기사 관련

-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‘삼성 장학생’ 논란이 일었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뢰로 삼성 계열사 임의취업 의혹에 대해 고용부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.
- 현직 고용부 장관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처음이다. 공정 채용을 관장하는 고용부 장관이 취업 의혹으로 감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셈이다.

### 2. 설명 내용

- 현재 고용노동부 감사관실에서 진행 중인 임의취업 여부 조사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여 실시하는 임의취업 일제조사로,
  - 이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후속 조치 또는 고용노동부의 일반 감사와는 무관한 사항임
-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\* 정기적으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퇴직공직자를 대상으로 임의취업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

\* 매년 ①국민건강보험공단·②국민연금공단·③근로복지공단 소득자료, ④ 국세청 기타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퇴직공직자의 임의취업 여부를 조사 실시 요청

- 고용노동부 임의취업 여부 조사 대상은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한 공직자 및 산하 공직유관단체에서 퇴직한 상근임원으로, 퇴직한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도 포함됨
-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부터 확인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, 향후 독립기관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여부에 대한 판단 및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

